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19. 7. 11(목) /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 자	·과장 신운근, 사무관 류나린, 주무관 홍창빈 ·☎ (044) 201-4215, 4216		
보도일시		2019년 7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1.(목) 11시 이후 보도 가능			

## 한-몽골 항공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

### 한국과 몽골 항공당국 간 「항공협력회의」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

- ◆ (MOU 체결) 항공협력회의 정례화 및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
- ◆ (항공협력회의) 우리나라의 항공정책 우수사례 공유, 상호이해↑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7월 10일-1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제1회 「한-몽 항공협력회의」에서 양국 항공당국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  - 한국과 몽골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항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항공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.
  - 또한 한국과 몽골 간 여객 수, 탑승률 등 항공수요를 분석하여 그에 따라 공급력 증대를 위한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, 세부적인 일정 조율을 통하여, 빠른 시기에 항공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.
- 한국-몽골 간 운수권은 '19년 1월에 개최된 항공회담을 계기로 인천-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은 약 70% 증대(주당 1,488석→2,500석) 하였으며, 부산-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은 약 80% 증대(주당 324석→585석)하였으나,

- 한국과 몽골 간 항공수요는 '18년 기준 약 33만 명으로 연평균 약 11% 증가하고 있어 한국-몽골은 지속적인 공급력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.

□ 한-몽골 항공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의 항공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.

○ 특히 한국의 국제항공정책, 운수권 배분 체계, 슬롯관리,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및 관리체계, 항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드론산업 육성정책 등 구체적인 항공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.

○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“그동안 한국과 몽골 간에는 상당한 항공수요가 존재함에도 공급력 확대 등에서 이견이 있어 왔었으나, '19.1월 항공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공급력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다”고 하면서

- “앞으로 「한-몽골 항공협력회의」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에 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